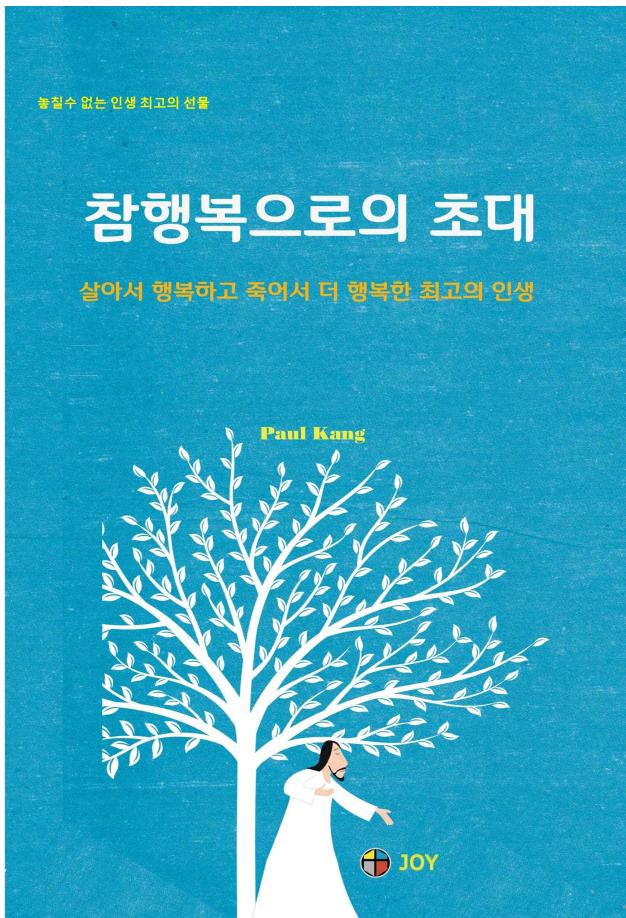


Korea



서 두

현대인들은 고도 산업화한 최첨단 기술이나 대량 소비사회 속에서 인간보다는 고성능의 기계나 소프트가 더 소중하게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중심이 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고독을 느끼거나 일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쁨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사는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바쁘고 복잡한 사회, 기계나 소프트가 더 중시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 본래의 모습이나 삶의 목적, 방향 등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뺑만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뺑 이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봄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자신을 발견함으로 행복하고도 풍성한 인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공부를 위한 준비

-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가장 좋은 것은 1주일 1회 최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 무리가 없도록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각 Chapter 마지막에는 칼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읽어오시면 더 알찬 공부가 될 것입니다.
-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식사, 상담, 계임 등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 례

Part 1 구원에 이르는 복음

- Chapter 1* 인간과 종교 7
- Chapter 2* 창조주 하나님 21
- Chapter 3* 현대인과 마음 31
- Chapter 4* 하나님과의 단절 41
- Chapter 5*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55
- Chapter 6*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67
- Chapter 7* 구원의 복음 81

Part 2 구원의 확신

- Chapter 8* 구원의 확신 93
- Chapter 9* 새로운 인생과 도전 107
- Chapter 10* 구원 간증 117

- 부록 1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점검 123

※Chapter 3은 시간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읽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다.

※Part 2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만을 위한 공부

Chapter

1

인간과 종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당초부터, 신을 찾는 행위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거나, 학습하여 몸에 익힌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발적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일본인은, 옛날부터 「팔백만(야오요로즈)의 신」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모든 존재에 신이 깃들어 있다, 혹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독특한 종교적 사상을 키워왔습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는 약 8만 4,000개의 사찰, 약 8만 8,000개의 신사, 그리고 약 8,600개의 기독교 교회가 존재합니다. 종교 인구는 감소 경향에 있다고들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1억 8,0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제외하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두 개의 종교적 배경에 관여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본인과 종교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종교나 신과 함께 걸어온 일본인이기에, 그 존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깊이 되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

1)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지으신 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질(영성, 지성, 의지, 초월성과 사랑 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과 닮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그 지으신 분인 하나님 사이에는 본래 떼려야 뗄 수 없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영적인 존재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영」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나 「자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점령하는 일이 없으며,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전파가 물체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우주는 전파로만 가득 차서 우리가 존재할 공간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나 파동」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은, 형태라는 틀에 얹매이지 않기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장소에 존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초월자」이신 것입니다.

2) 인간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 (창조주와의 교제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Neshamah」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에너지, 생명력과 같은 하나님의 성질 그 자체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한 「몸」과 「혼(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하나님)와 교제하기 위한 「영」을 겸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발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b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인간은 「영·혼·몸」의 세 측면을 가진 다층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요소가 손상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보존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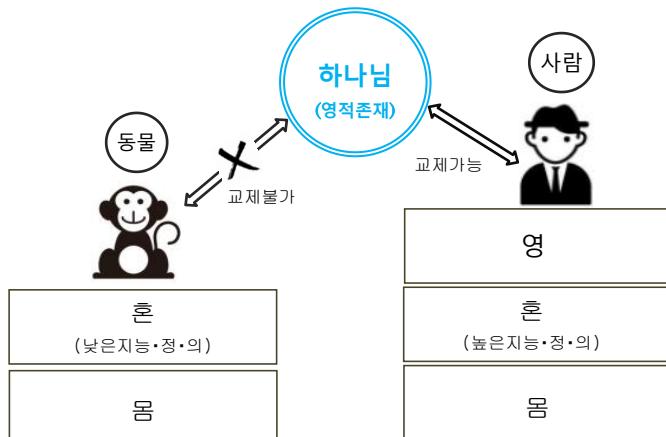
따라서 인간은 본능으로만 사는 동물과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깊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실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알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증거]

- 양심의 가책과 죽음 및 사후에 대한 외경심
-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
- 승배의 대상을 찾는 마음 (피조물의 신격화)

(기타, "초월적 가치에 사는 존재": 사랑, 자비, 도덕성과 양심, 삶의 목적, 풍요 속의 공허 등)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창세기 1:27),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는 다른 「도덕심」이나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성구를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존재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의 적인 「도둑(마귀)」의 목적과 비교해 봅시다.

요한복음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도둑(마귀)의 목적

우리의 기쁨이나 평안, 고귀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을 절망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의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써 비로소 허무함이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 일본 사회에서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오해

여기서는 현재의 일본 사회, 또는 현대인이 품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과 「오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① 「모든 종교는 같다」는 오해

● 「추구」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일반적으로 「종교」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는 행위이며, 흔히 「등산」에 비유됩니다. 「어느 루트로 올라가도 결국은 같은 산 정상에 다다르는 것이니, 무엇을 믿어도 결과는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많은 종교는 인간 측에서의 끊임없는 수행이나 선행과 같은 「추구의 행위」에 의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들은 이른바



「추구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에서의 구원이란 인간이 산을 올라가 손에 넣는 「보수」가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혹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다는 의미에서 「계시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 「어느 종교나 같다」는 오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라는 같은 범주에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남자라면 누구든 괜찮다」「상대가 누구든 결혼 생활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큼 난폭하고 무책임한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상대가 다르면 그 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듯이, 종교도 그 가르침, 구원의 방법, 과정, 그리고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은 정말로 「누구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선택은 결혼 이상으로 종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사후의 영원까지 관계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② 「종교는 기복(이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오해

많은 사람은 종교를 「현세적인 이익(기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곤란할 때 도움을 구하고 어떠한 혜택을 기대한다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본연의 역할은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종교란 단순한 「소원 성취 창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나 존엄, 그리고 사랑과 같은 내면적인 질을 높여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살고 있는가」「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사후의 구원이나 영혼의 평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선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③ 「종교는 약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

종교성(영성)이란 인간의 강함이나 약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자립하고 싶다」「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척하는 마음이 그 본능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한 척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행복한 일일까요?

● 「강한 척하는 불행」과 「약함의 은혜」: 진정한 강함으로의 초대

「강한 척하는 불행」과 「약함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진리에서 눈을

돌려버리는 것은 결코 풍요로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척해 보여도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약함에 직면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약해서 믿고 강해서 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믿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본연의 종교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성실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공경하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죽음조차 포함한 「이 세상의 온갖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강함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강한 척하며 살려는 사람은 곁보기엔 강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이외의 온갖 것들(질병, 노화, 타인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에 겁내며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당신은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④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 일본인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오해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서양인을 위한 종교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기독교의 뿌리는 서양이 아니라 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쪽으로 퍼져나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의 근대화, 민주주의, 학문,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서양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선진적인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에 한정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동양」이라는 구분을 훨씬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근대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일본에 있어서도 성경은 결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의 근원에 있는 「훌륭한 가치」를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⑤ 「죽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오해

많은 일본인은 「죽으면 성불하여 극락에 갈 수 있다」, 즉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불교의 주류인 대승불교에서는 생전에 수행이나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도 사후에 계명을 받고 장례를 치름으로써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 시대가 나아가면 「한 번 염불을 외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파하는 종파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현실 앞에 선 인간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근거 없는 착각 위에 사후의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끝에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는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사후 약 600년을 거치며 다양한 사상이 섞여 형성된 것입니다.

반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에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명확한 사실과 근거」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대

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궁극의 희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에 의한 공식적이고 확실한 증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실에 의해 인간에게는 단순한 위안이 아닌 「확실한 구원의 근거」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실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⑥ 「종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섭다」는 불안

「종교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무서운 것이 된다」는 불안을 품는 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무리도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의 이름을 빌린 단체가 반사회적인 사건을 일으켜 소중한 희생자를 낸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경계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심 때문에 「모든 종교나 교회는 불필요하다」고 잘라버리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장소」를 판별하는 눈을 가질 것

비유하자면, 「세상에는 불성실한 교사가 있을지도 모르니 아이를 일절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데 묶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건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인정받아 온 전통적인 신앙에 비해 사회성이나 윤리관이 부족한 신흥 단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가르침에 대해 극단적인 적의를 품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곳에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자유와 사랑이 있는가

건전한 교회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출석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본인의 자유 의지가 존중됩니다. 만약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속박이나 강제가 있다면 그곳은 경계해야 할 장소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최고의 사랑의 실천가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는 건전한 교회에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시 살아나기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교회가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침으로 삼는 교회는 이 사회에 있어서 「어느 곳보다 건전하고 안전하며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라며 문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3 . 맷음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나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진리에 대해 겸허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또한 영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종교와 인간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이 있습니까?

(2) 「2 . 종교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럼 1】 성경의 놀라운 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시대, 연령, 인종, 국적을 뛰어넘어 전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와 장래에 대한 예언, 인간의 죽음과 사후등의 다양한 내용과 테마가 망라되어 있는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매년 전세계 베스트셀러 1위의 책입니다.

내가 대학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읽기 시작한 성경은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나는 삶의 목표도 자신감도 없이 그냥 그날 그날을 소비하며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만난 성경은 지금까지의 책과는 전혀 다르게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자 마음은 활기가 넘치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고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나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없이 큰 변화를 경험하며 주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역사상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활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으로는 미국의 링컨, 세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총리, 과학자로는 아인슈타인, 뉴턴, 파스퇴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음악가로는 바흐, 하이든, 베토벤, 미술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기타 헬렌 켈러, 마더 테레사와 같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국제연맹의 사무 차장을 지낸 니이토베 이나조, 동지사 대학의 창립자 나이지마 아오이, 도쿄대학 총장을 지낸 난바라 시게루, 야나이하라 타다오, 작가 우치무라 간조, 미우라 아야코, 엔도 슈사쿠, 사회 운동가인 가가와 토요히코, 나치의 학살에서 유대인을 구한 스기하라 치우네, 사자에상의 작자 하세가와 마치코, 안팡만의 야나세타카시, 노구치 히데요 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임에 틀림없으리라 확신합니다.